

## 농·축협 판매 펀드 리스트

**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**

구분	펀드명	위험등급	투자전략	주요 투자대상 및 비율
채권형	키움 장대트리플플러스 증권투자신탁 1호 (채권혼합)	5	신탁재산의 90% 이하를 채권에, 국내 주식에 30% 이하 투자하여 채권투자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, 국내 주식에의 투자를 통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	채권 90% 이하 주식 30% 이하
	신한 단기국공채 공모주 증권자투자신탁 (채권혼합)	5	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(100% 이하)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.  모투자신탁(신한 단기국공채 공모주 증권모투자신탁[채권혼합])은 투자신탁재산의 60% 이상을 국채, 통화안정증권, 우량 회사채 등의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, 투자신탁재산의 10% 이하의 범위에서 공모주 등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임.	모투자신탁 100% 이하
	HDC 날아라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5	신탁재산의 30%까지 공모주 등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고, 50%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함.  주식은 상장 또는 확약기간 해제시 공모주 전량매도를 원칙으로 하며 채권 투자는 국공채 중심으로 하여 안정적인 성과를 지향함.	채권 50%이상 주식 30%이하
	HDC 디딤모아주고막아주는 증권투자신탁 제1호(채권혼합)	5	신탁재산의 30% 이내에서 배당주 및 공모주에 투자하여 추가적인 자본수익을 추구하고, 60%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함. 성장성이 높은 저평가 주식에 투자하며 공모주 투자로 추가수익을 확보함. 2년이하 듀레이션의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성과달성을 목표로 함.	채권 60% 이상 주식 30% 이하
	유진 챔피언 공모주&배당주30 증권투자신탁 (채권혼합)	5	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자본수익 및 이자수익을 추구하면서 신탁재산의 30% 이내에서 배당주 및 공모주에 투자하여 추가적인 자본수익을 추구함. 신탁재산의 60%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기타 어음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이자수익과 자본수익을 추구함.	채권 60% 이상 주식 30% 이하

채권혼합형	신한 삼성전자알파 증권자투자신탁 제1호 (채권혼합)	4	<p>국내 채권 및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</p> <p>모투자신탁(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모투자신탁[채권혼합])은 '삼성전자 주식'과 '국내채권에 투자함.</p> <p>삼성전자 주식에의 투자는 시장 국면에 따라 '적극적 매매 전략'과 '장기보유전략'을 병행할 계획이며, 최대편입비중은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고, 이는 시장사황에 따라 변동됨.</p> <p>채권에의 투자는 신용 펀더멘탈분석에 기반한 저평가 종목 발굴, 상대가치전략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, 국채, 통안채 등 채권 및 채권ETF에도 투자할 계획임.</p>	모투자신탁 99% 이하
	미래에셋스마트롱숏30 증권자투자신탁1호 (채권혼합)	5	<p>모투자신탁에 90% 이상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함.</p> <p>모투자신탁(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[채권혼합])은 국내채권에 50% 이상 투자하고, 국내 주식 및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합산하여 30% 이하로 투자할 계획임.</p> <p>시장상황 및 산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대비 양호한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롱 포트폴리오(주식매수)를 구축하고, 시장대비 부진한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숏 포트폴리오(주식매도)를 구축하여 운용할 계획임.</p>	모투자신탁 90% 이하
	신영고배당30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4	<p>우량 채권 및 어음 등에 70% 이하로 투자하고, 배당주식 등에 30%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</p>	채권 70% 이하 주식 30% 이하
	삼성배당플러스30증권자투자신탁제1호 (채권혼합)	5	<p>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국내주식에 신탁재산의 30% 이하를, 100%이하를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60% 이상 투자하여, 투자대상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함.</p>	모투자신탁 60%이상
	KB 벨류 초이스 30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4	<p>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, 국내 우량 채권 등에 50% 이상 투자하면서 국내 저평가 주식에도 30% 이하 수준으로 병행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함.</p>	채권 50% 이상 주식 30% 이하
	신한 공모주& 밴드트레이딩 30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혼합)	4	<p>채권 및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(100%이하)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.</p> <p>모투자신탁은 가치주, 배당주, 공모주 등 국내 주식 및 국채, 통화안정증권, 우량 회사채 등 채권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임.</p>	모투자신탁(채권관련) 100% 이하

채권화한화형	NH-Amundi 4차산업혁명 30 증권투자신탁 (채권혼합)	4	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, 신탁재산의 50%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고 국내주식에 신탁재산의 30% 이내의 범위에서 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 및 국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를 목적으로 운용함.	채권 50% 이상 주식 30% 이하
	NH-Amundi 필승코리아30 증권투자신탁 (채권혼합)	4	투자신탁 재산의 30% 이하를 산업 구조 개편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 혁신성과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가진 부품, 소재, 장비 업체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며, 투자신탁재산의 50% 이상을 국공채, 지방채, 특수채 및 은행채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	채권 50% 이상 주식 30% 이하
	키움 고배당 에이스 30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(채권혼합)	4	국내 배당주 등에 주로 투자하는 '키움고배당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'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 이하를 투자하고,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'키움ESG증권모투자신탁[채권]'에 90% 이하를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추구를 목적으로 함.	모투자신탁(주식관련) 30% 이하 모투자신탁(채권관련) 90% 이하
	IBK KOSPI200 인덱스30 증권자투자신탁 (채권혼합)	5	투자신탁재산의 70% 이상을 채권 관련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동시에 투자신탁재산의 30% 이하를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함.	모투자신탁(채권관련) 70% 이상 모투자신탁(주식관련) 30% 이하
	NH-Amundi 모아모아 30 증권투자신탁 (채권혼합)	4	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탁재산의 30%까지 주식에 투자하여 관련 주식의 가치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추구를 주요 투자목적으로 함.	채권 50% 이상 주식 30% 이하

채권혼합형	<p>NH-Amundi 농촌사랑 고배당 30 적립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</p>	5	<p>채권관련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50% 이상 투자하고, 주식관련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30% 이하 범위 내에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함.</p> <p>채권관련 모투자신탁(NH-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)은 투자신탁재산의 60%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수익 및 자본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 주식관련 모투자신탁(NH-Amundi 고배당주 증권모투자신탁1호[주식])은 신탁재산의 60% 이상을 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의 우량종목 및 고배당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함. (집합투자업자 수취보수 30%, 판매회사 수취보수 30%를 귀농·귀촌 지원사업 관련 기금에 조성)</p>	<p>모투자신탁(채권관련) 50% 이상 모투자신탁(주식관련) 30% 이하</p>
	<p>우리BIG2 플러스 증권투자신탁 (채권혼합)</p>	4	<p>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100%이하 및 주식에 30% 이하로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로서 채권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추구와, 삼성전자 &amp; SK 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하고 알파전략으로 전략 중소형주, IPO 전략을 통해 추가수익을 추구함.</p>	<p>채권 100% 이하 주식 30% 이하</p>